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 조합원 섬기는 공제조합 만들 것”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

올해 3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총회에서 김기석 신임 이사장이 선임됐다. 국토교통인력개발원장을 역임한 인사(人士)로, 취임과 동시에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발전과 조합의 도약을 위해 일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조합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조합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는 김기석 이사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 우리 조합은 설비건설업계에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제고와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원인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 이사장 취임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원사와 기계설비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지난 3개월 동안 현안문제를 파악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조합이 무엇보다 앞장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경영활동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는데 반해, 조합은 아직 설립초기의 운영 형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합원사와 시대적 주문에 한 발 앞서, 조합 스스로의 혁신으로 조합원사의 신뢰와 지지를 얻겠습니다.

□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설비건설업계를 위해 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합은 설비건설업계에 각종 보증과 융

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제고와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원인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5월 28일 공포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해줘야 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더라도 ‘어음만기일까지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이행 중에 원도급사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면제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보증을 해주도록’ 하여 그동안 원도급사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공사대금

을 지급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이행하던 하도급사가 대금지급보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앞서 관련 사항을 조합원사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조합원사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적극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보증취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개정 및 보증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하도급의 위치에 있는 조합원사가 대금지급보증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설비건설업계가 공정 하도급·경쟁 질서 안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정거래 문화가 건설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 **보증기관으로서 조합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합 영업수익의 근간은 보증수수료, 용자이자 수입 등인데, 이를 늘리는 것은 조합원사에 대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업계 최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금리 추세에서 지급과 같은 자금운용 수익을 거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소중한 출자금으로 설립된 조합인 만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조합 수

익을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 및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투자원칙을 세우고,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조합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지급 과다업체 등의 보증채권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보증사고 발생시, 저희 조합이 직접 타절 정산에 참여함으로써 보증채권자의 일방적 타절을 방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채권자마다 기성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공정대비 지급현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의 성향을 수집, 분석하여 관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다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조합이 설립된 지 어느덧 만 18년이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20년 가까이 존속하고 영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바탕을 이뤘을 것이고, 조합원 여러분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조합원께서 일궈놓은 조합을 더욱 발전시켜 조합원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섬기는 공제조합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우리 기계설비업계와 조합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입금계좌 및 CMS출금계좌 온라인 신청 안내

(제도 시행일 : 2014. 5. 12)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원께 보다 나은 업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환불 등에 사용하는 입금계좌 및 용자금 이용시 납부하는 용자이자 자동출금을 위한 CMS 출금계좌 등록에 대해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온라인지점 계좌등록 방법

- 영업정보서비스 → 입금계좌/CMS출금계좌신청 → 입금계좌 혹은 CMS출금계좌 입력 후 저장 → 정보 입력 후 거래지점(또는 영업소)에 통장사본 팩스 송부 



※ 단, 개인통장(개인사업자)은 입금계좌의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 CMS출금계좌 등록은 개인정보수집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점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처리

조합에서는 향후에도 조합원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조합원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